□□□ 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<□, □□ □□>

□□ 4□ 23□ 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(□□□)□ □□□ '□, □□ □□'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, □□ □□ □□(shell)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, 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 □□□□□.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□.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, 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 □ 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. □□ '□□'□ □ □□ □□ '□□'□ □□□□ □□□.

가수 재주소년

시인 정호승

□□□□ □□□ □ 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.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, 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.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 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, 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 □ □□.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 □□ □□□□. □□ □□□□ 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. □□ □,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.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,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.

□□ 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,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,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. "□□□ □□□□□, □□□ □□□□, □□□ □□□□, □ 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? (…) □□□□ □□ □, □□□□ □□ □,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.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– □□ □□ □□□." 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. 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. 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. □□□ 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.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.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

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 □ □ □□□ □□□□□.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. “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 □□□□ □□□, 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 □□.” [□□□□□ □□, □□□□ □□□, □□□ □□, □□□, 2007, 41□, 43□ □□]

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.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. □□ □□□ □□□?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,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,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.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,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 □□□ □□□□. □□□ □□□□ “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”□ □□□ □□□.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.

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
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
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
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
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
-□□□,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 □□

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. □□ (□ 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) 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“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 □□□”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□ □ □□ □ □□□? □□,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 □□□ □ □□□□ □□□□? □□ 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.

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
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
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
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
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
-□□□,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 □□

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“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”□□.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. □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 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,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, □□ □□□ □□ 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 □□□ □□, 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,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, 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 □ □ □. 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(□□)□ □□ □□.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.

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.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, □□□ □□ 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, □□□ □□ □ □□□ □□□,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. 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,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

[illegible]

[illegible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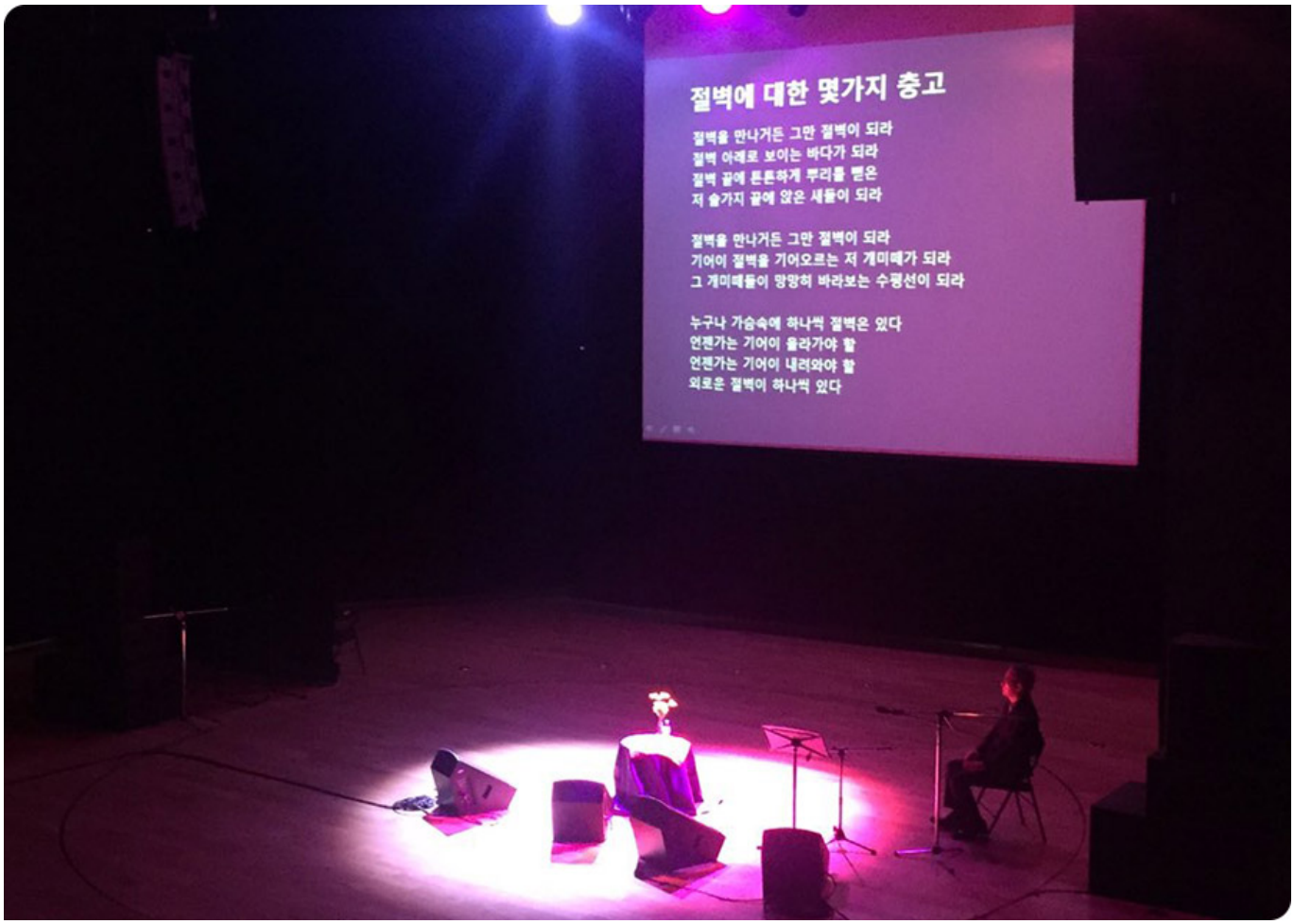
[illegible]

— [illegible]

[illegible]

[illegible]

봄, 다시
희망


절벽에 대한 몇가지 충고
절벽을 만나거든 그만 절벽이 되라
절벽 아래로 보이는 바다가 되라
절벽 끝에 튼튼하게 뿌리를 뻗은
저 솔가지 끝에 앉은 새들이 되라
절벽을 만나거든 그만 절벽이 되라
기어이 절벽을 기어오르는 저 개미떼가 되라
그 개미떼들이 망망히 바라보는 수평선이 되라
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씩 절벽은 있다
언젠가는 기어이 올라가야 할
언젠가는 기어이 내려와야 할
외로운 절벽이 하나씩 있다

□/ □□□ □□□□□□3.0□□□□